



경기 종합

주목되는 1995년 경제

93년 1월을 低점으로 꾸준히 상승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경기의 흐름이 최소한 95년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번의 경기 침체가 상대적으로 길고 깊었기 때문에 경기의 상승 탄력성이 과거에 비해 높을 것이라는 점과 최근 설비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높아졌다는 점 등이 그러한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의 경기 회복과 개도국의 고성장 지속에 힘입어 94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의 활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엔貨 환율·국제원자재價·국제 금리 같은 가격 변수들도 우리에게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다. 엔貨 가치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다소 절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원자재價는 지난 해의 오름세가 오히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제 금리가 미국의 잇달은 금리 인상으로 지금까지의 저금리 추세를 벗어나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을 줄 만한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대내적인 여건 변화이다. 외환 자유화의 확대로 해외로부터 자본 유입이 크게 증가되면서 원화 절상과 통화 증발 압력이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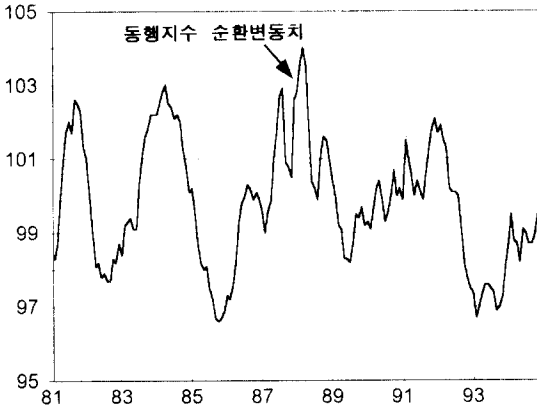
될 것이다. 또한 SOC 투자에 대한 民資 참여와 地自制 선거의 여파로 토지 가격이 크게 들먹거릴 수도 있다. 더욱이 95년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따라 세계적인 무한 경쟁 시대가 개막되는 해이며 남북 통일을 향한 실질적 첫 걸음을 내딛는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든 변화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수용해나가는가에 따라 향후 경제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95년은 크게 주목되고 있다.♣

<95년 국내 경제 전망>

		1993	1994(P)	1995(E)
경제성장률 (%)		5.6	8.0	7.5
민간소비 (%)		5.7	7.5	7.5
고정투자 (%)		3.6	9.5	8.3
건설투자 (%)		5.8	4.2	7.9
설비투자 (%)		0.2	18.0	8.9
수출 (통관)	억 달러	822	948	1,044
	증가율(%)	7.3	15.3	10.1
수입 (통관)	억 달러	838	1,006	1,097
	증가율(%)	2.5	20.1	9.0
무역수지 (억달러)		21	24	-19
경상수지 (억달러)		5	47	-40
소비자물가 (%)		5.8	5.8	6.2
생산자물가 (%)		2.0	3.5	2.9
환율 (말기준)	₩/\$	808	790	776
	¥/\$	112	100	105
회사채수익률(%·평균)		12.8	13.0	13.4

산업 활동

경기 확장세 지속



94년 10월 중 산업 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 및 장비, 조립금속 등 중화학 공업의 호조가 계속되고, 신발 및 담배를 제외한 경공업의 생

산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비 15.0% 증가하였다.

10월 중 국내 기계 수주는 전년 동월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공 부문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 조립기계 등 민간 부문의 기계 수주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건설 수주는 도로 및 지하철 공사의 대규모 발주에 힘입어 공공·민간 부문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수축 국면에 있는지 확장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에 비해 0.6%p 상승하여 93년 1월 이후의 경기 확장세를 22개월째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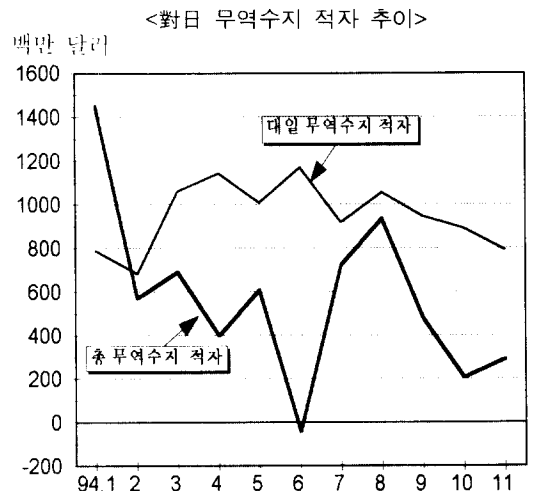
對日 무역적자 100억 달러 초과

연간 對日 무역 수지 적자가 94년 11월 20일 현재 통관 기준으로 10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94년 11월까지의 연간 총 무역수지 적자액인 64억 달러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11월까지의 對日 수출은 92년과 93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전년 동기 대비 15.2%라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지만, 자본재가 주도한 수입이 25.6%나 증가하여 '뛰는 수출, 나는 수입'의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對日 무역 역조는 엔고 등에 의한 자본재 가격 상승과 대일 무역 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만들어졌던 수입선 다변화 제도의 폐지를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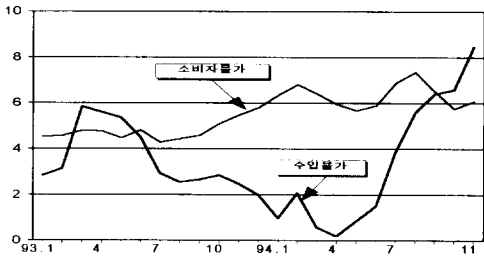
기로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물가

수입물가, 4년만의 최고치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94년 11월 중 소비자 물가는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과 일부 공산품의 가격 파괴 현상으로 전월 대비 0.2%, 전년말 대비 5.5% 상승하였다. 최근 물가 움직임의 특징은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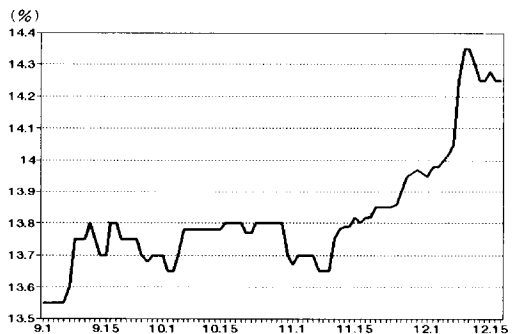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수입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다는 점이다. 11월 말 현재 수입 물가 상승률은 8.5%로 93년 동기의 2.5%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일뿐 아니라, 90년 걸프전 당시에 일시적으로 11.0%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81년 석유 파동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는 세계 경기의 회복과 기후 불순, 생산국의 감산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11.8% 상승한 데 기인한 것으로, 11월 중에도 석유·화학 및 고무 제품과 제1차 금속 제품 등의 수입 물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수입 물가 상승폭 확대는 95년의 물가 불안을 예고해 주고 있다.♣

금리

장기 금리 14%대의 고금리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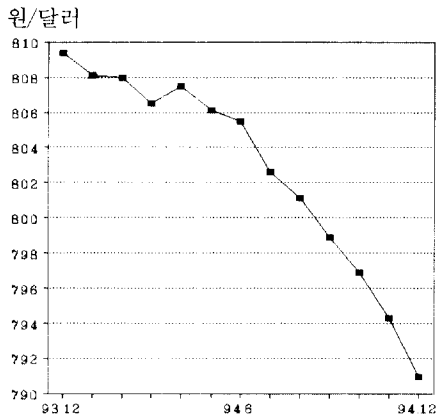
94년 11월 중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회사채 수익률은 94년 12월 12일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금리 안정 노력으로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이다.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원인은 통화 관리 불안, 회사채 매입 자금의 이탈, 정부 조직 개편 와중에서의 금리 제어 기능 약화 등 다소 복합적이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11월의 한국통신 공개 입찰과 중소기업은행 공모주 청약으로 3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금융권에서 대출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자금

에 의한 통화 수위 상승은 현재까지 통화 당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분간 회사채 수익률은 통화 당국의 적극적인 금리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상승세와 물가 불안, 국제 금리 상승 등이 맞물려 쉽사리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 화

수그러들지 않는 원화 切上勢



작년 12월 1일부터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가 15%로 확대되며 원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주식 투자를 위해 유입된 외화 자금이 원화의 수요를 확대해 원화가 切上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에도 전혀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더욱이 올해는 외환 제도 개혁에 따라 금융 시장의 개방폭이 크게 확대된다.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원화의 절상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1월달은 크리스마스 등의 여파로 주춤했던 외자가 유입되며 서서히 원화에 절상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원화는 1월 중 790원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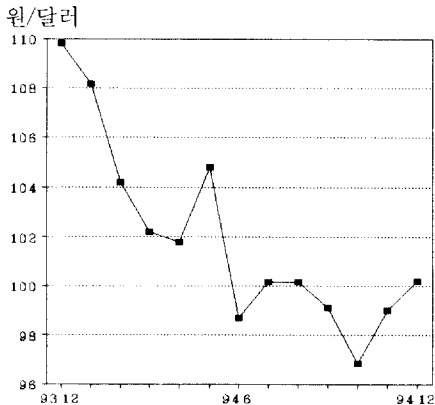
엔 화

엔화 下落에 한시름 덜은 日本

경기 과열을 우려한 美聯準이 또다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심리가 팽배하면서 엔화는 미달러화에 대해 하락세를 보이며 100 엔대로 돌아섰다. 작년 10월 소폭으로나마 감소했던 일본의 對美 무역흑자도 엔화 가치의 하락을 부추겼다. 작년 10월 중 일본의 對美 무역 흑자는 47.9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6.8% 감소되었다.

앞으로 엔화의 향방은 美·日間 무역 수지의 추이와 美聯準의 금리 인상 조치에 달려 있다. 금년에는 미국의 경기 전망이 양호하여 美聯準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작

년 12월 일본이 板 유리 시장 개방에 합의하는 등 美·日間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엔화는 계속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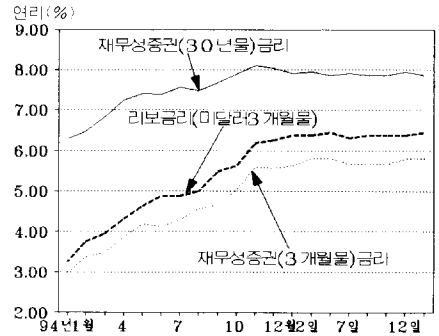
국제 금리

국제금리, 상승세 지속

경제의 빠른 확장세로 인한 인플레이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美聯準이 지난해 6차례 정책 금리를 인상하면서 국제 금리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지표인 30년물·3개월물 재무성 증권 금리는 94년 12월 15일 현재 각각 7.88%, 5.55%로 93년말에 비해 각각 1.53%p, 2.54%p 상승하였다. 리보 금리(美달러 3개월물)도 6.38%로 93년말 대비 3.00%p 상승하여 93년초 이래의 급등세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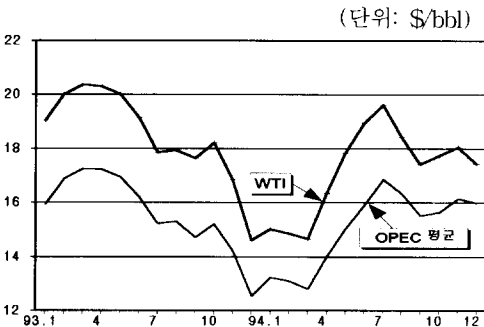
이러한 금리 상승 추세는 95년에도 지속될 전

망이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 호전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美聯準이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올 1월이나 2월에 정책 금리를 0.5%p 이상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제 원유가

OPEC 영향력 감소로 안정 전망



12월 중 국제 원유가는 OPEC의 생산 상한선 1년 연장 합의로 산유 정책이 시장 점유율 확보에서 가격 인상 우선 정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PEC 평균 가격 기준으로 15.9\$/bbl에서 조정 양상을 보였다.

이는 OPEC내 일부 회원국들의 생산 상한선 초과와 동절기의 따뜻한 기온 등으로 재고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OPEC의 가격 인상 우선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북해 유전 등 非OPEC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OPEC의 영향력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OPEC의 시장 점유율은 79년의 2차 석유 파동 당시에 47.2%였으나, 80년 이후 감소 추세를 시현, 94년 9월말 현재 41.1%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같은 시장 여건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유 시장에서의 투기 자금 이탈 가능성 등으로 원유가는 당분간 현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